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선과 악 속에서 허덕이지 말고 그 속에서 활짝 벗어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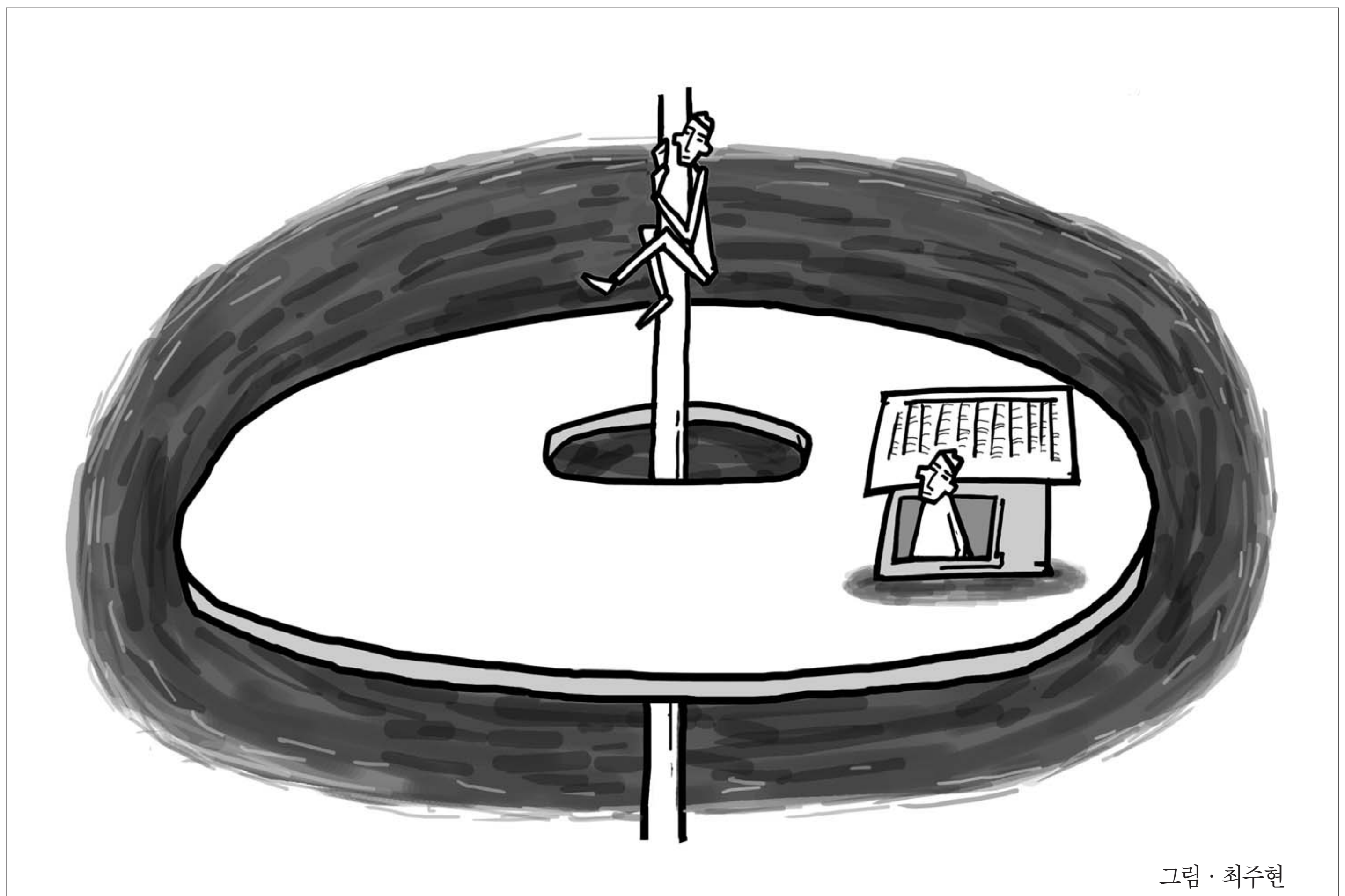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을 작년에 만나 뵙고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있고, 또는 작년이라는 말을 해놨고, 올해라는 말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그런 말이 없다면 질서가 문란하겠죠.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질서와 교양, 교육, 충성, 효도, 의례의식이나 모든 천(天) · 지(地) · 인(人) 삼재(三才)의 그 질서적인 자연의 법칙, 이러한 문제들을 새삼스럽게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더욱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화엄 세계를 저렇게 (뒤편의 목탱화를 가리키시며) 해놓은 것은 천 · 지 · 인 그 삼재의 상세계 · 중세계 · 하세계를, 세상 살아나가는 도리를 그대로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공이라는 그 자체. 영화를 봐도 주인공 죽는 법은 없죠. 그거 실감하셨습니까? 이렇게 구르든 저렇게 구르든 주인공 죽는 법은 없어. 죽었어도 또 되살아나. 그게 무슨 원리인가? 주인공이 없다면 마땅히 이 세상이 돌아가질 않아. 또 살림살이에서도 자기의 마음이 없으면 육체가 돌아가질 않아. 주인공 죽는 법은 없어. 아무리 똑똑하지 않고 제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뛰어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 주인공이 살지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죽어, 영화를 봐도. 여러분이 아마 실감하시리라고 믿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각자 주인공을 진실히 믿습니까?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믿습니까?

대중: 예.

스님: 그 믿는 마음은 '주인공, 이런 걸 해주십시오, 저런 걸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로 믿는 마음에서 일차적으로는, 한 말을 되한다고 그러시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일차적으로 내가 믿는다, 진짜로 믿는다면 죽고 사는 것을 거기에다가 다 놔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악과 선 일체 모든 돌아가는 것을 다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을 수가 있다면, 바로 놓고 난 뒤에, 양면을 돌아가면서 다 놓을 때에 비로소 무엇이 거기서 생산이 되느냐? 생각 내는 마음입니다. 믿고 놓아서 생산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게 천 리를 갈 수도 있고, 한 찰나에 저승에 갈 수도 있고, 미래에 갈 수도 있고, 과거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 여기 앉아서 집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우주와 더불어 이 세상에 광대무변하게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근본이, 바로 우주의 근본이 마음입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 근본을 알 수가 없어. 또 이 세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을 알 수가 없어. 근본입니다! 내놓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근본자리에서 광대무변하게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까닭에 여러분은 "아이구, 이렇게 놓고 가는데도 안됩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하기를 '안되는 것도 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되는 것도 놓는다면 우리 어떻게 살고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진짜로 믿는다면 다 거기에 진짜로 믿고 놓고, 마음을 잘 낸다면 일이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마음을 잘 내! 꿈을 꾸고도 자기가 언짢게 생각을 하고 '아이구, 꿈 잘못 꿨구나. 이거 언짢은 꿈이로구나.' 하고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언짢게 재앙이 옵니다.

또 조상에게도 너무 집착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조상들에게도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 형제가 있다면 형에게도 자식이 있고 나한테도 자식이 있고 동생한테도 자식이 있겠죠. 형에게 자식이 있으면 형의 제사는 그 자식에게 밀어 던져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마음으로 '내가 부모님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이 세상에 났나. 참 감사하구나.' 하고서 그 날을 맞이해서 심중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날이 제삿날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덮어놓고 착을 붙일 거나 안 붙일 거나 다 붙여 돌아가서는 집안의 가환을 불러일으킨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생각 내는 걸 그냥 우습게 보고 하루살면서 그냥 그냥 쉽게 생각 낸다고 그러지마는 보이지 않는 그 자체에서는, 생각 한 번 내는 데 보이지 않는 물질 없는 물체들이 얼마나 아우성을 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 도리를, 그렇게 마음 한 번 내는 게 귀중하다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내는 그 생산처가 천차만별로 돌아가면서 만약에 있다면, 이것이 돌아가게 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의 심봉은 그냥 거기에 심봉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건 움죽거리지 않죠, 비교한다면. 생산처에 자동적으로 번호 없는 번호가 매겨져 있다면 넝마전은 넝마, 무쇠전은 무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전부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줄줄이 줄줄이 붙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심봉에다가 생각하는 걸 좋게 생각해서 놓는다면 자동적으로 자연의 법칙으로 인해서 스스로 돌아가서 나한테 생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드려도 모르신다면 이건 큰일이죠. 자기가 자기를 믿고 생산을 해내는 데 마음을 잘 써야 합니다.

마음을 잘 쓰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이 조금만 남이 억울한 소리를 해도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 탓으로 돌리질 않고 남을 원망하게 되고, 착을 두게 되고, 욕심을 두게 되는 건 내가 생각 한번 잘못한 까닭입니다. 내 앞에 닥치는 거 닥치는 것대로 갖게 되면 갖게 되는 거고, 가진 것 내버릴 필요도 없고 끌어당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욕심 부리지 말랬다고 재산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착을 두지 말라는 얘깁니다.

여러분은 관리인이에요. 잘 쓸 수 있는 관리인입니다. 마음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달려 있어요. 또 생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생각을 잘하면 말도 잘하게 되고 행도 잘하게 되지마는,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행과 말이 잘못 나갑니다. 우리가 번연히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건 알면서 받고, 몰라서 지키지 못하고 행을 저지르는 것은 모르고 받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받는 일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억울하다. 나쁜 일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업보가 많아서 이러느냐?'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어저께 없는 오늘은 없죠. 그럼으로써 내가 하지 않은 게 어디 내 앞에 붙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생산처!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앞에 말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만 가지 생산을 할 수 있다, 닥치는 대로 생각을 잘해서 놓는다면 스스로 아주 훌륭하게 만 가지 생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법칙에 의해서, 자연법에 의해서 아주 출중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 하는 속담의 말이 있듯이, 여러분이 깨달으면 독 안도 없고, 나올 것도 없고, 들어갈 것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느 날, 어느 날 할 것 없이 매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삼천 년 전에 그렇게 했고 단군 할아버지도 그렇게 했고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가르쳤던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주인공을 타파 못한다면, 자기 내공을 타파 못한다면 과거심(過去心) · 현재심(現在心) · 미래심(未來心)의 삼세심(三世心) 내공

☞18면으로 계속

2008학년도 제 1기생
육효학 전문가 과정

동양문화의 중심 동방대학원대학교에서
육효학의 미래를 열어나갈 인재를 모십니다.

모 집 안 내

지원자격	○ 역학분야 3년 이상 연구자 ○ 저명인사 및 교수추천 자 ○ 전문상담사 및 교육강사 희망자
모집정원	30명 (선착순 마감)
접수기간	2008년 3월 7일까지
제출서류	입학원서(소정양식),이력서,반명함판 사진3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교육기간 : 2008년 3월 11일 ~ 6월 24일 (16주)
＊1학기 16주, 1년 2학기제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
◆교 수 진 : 한중수 / 유방현 / 유인수 / 노재환
및 동방대학원대학교 전공 교수진
◆교육내용 : 육십사괘 해석과 적용 / 육효 전문용어 해석과 적용
천금부 및 쇄금부 / 십팔문답 / 구재점 / 가출점 / 시험점
매매점 / 질병점 / 소송점 / 하지장 / 내정법
◆문 의 처 :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주임교수 유방현 011-9902-4640

※졸업 후 특전
– 동방대학원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서','육효학 지도가 자격증' 수여
– 동방대학원대학교 육효학회 정회원 자격부여
– 한국전통과학아카데미학술위원 위촉 및 학술위원증 수여
– 성적우수자 문화센터 및 사회교육기관 강사로 위촉

육효학 전문가를 위한 공개무료특강
◇일시 : 2008년 2월 24일(일) 오후 1시
◇장소 : 동방대학원대학교 4층 대강당

동방대학원대학교문화교육원
문의전화 (02)953-3500,(02)745-8053

2008학년도 제 4기생
명리학 최고지도자 과정

東洋文化의 중심 東方大學院大學校에서
命理學의 未來를 열어나갈 人材를 모십니다.

모 집 안 내

지원자격	○ 명리학 전문가 및 최고지도자로 나아가고자 하시는 분 ○ 전문 명리학 상담사 희망자 ○ 전문교육강사 희망자
모집정원	50명 (선착순 마감)
접수기간	2008년 2월 29일까지
제출서류	입학원서(소정양식), 이력서, 반명함판 사진 3매

『최고지도자로 다듬어가는 동방대학원대학교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앞길에 등불이 될 것이며 찬란하게 빛나는 여러분들의 명성 뒤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교육기간 : 2008년 3월 2일 ~ 6월 15일 (16주)
＊1학기 16주, 1년 2학기제
◆교육시간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7시
◆교 수 진 : 한중수 / 최인영 / 노재환 / 박청화 / 유방현
및 동방대학원대학교 전공 교수진
◆교육내용 : 명리학 기본이론 / 조후강론 실전풀이/ 성명학 연구
명리학 실전해설 / 육효 실전풀이 /풍수지리학 기초이론
격국용신 실전 풀이 / 자미두수 실전풀이 / 인상학연구
타로이론 및 실습/ 명리 통변 기법 / 서양천문해석
◆문 의 처 :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주임교수 유방현 011-9902-4640

※졸업 후 특전
– 동방대학원대학교 총장명의 '졸업증서','명리학교육강사' 자격증수여
– 동방대학원대학교 명리학회 정회원 자격부여
– 문화센터 및 사회교육기관 강사로 위촉

명리학 교육강사희망자를 위한 공개무료특강
◇일시 : 2008년 2월 17일(일) 오후 1시
◇장소 : 동방대학원대학교 4층 대강당

동방대학원대학교문화교육원
문의전화 (02)953-3500,(02)745-8053

발 로 해

(특수기능성 두한족열 양말)

발로해가 오리지날 기능성!
유사품이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떨어집니다

◉절수행 최고의 수행도우미!
(법당에서,참선,명상,성지순례,등산,운전,고시수험생)
◉양말 내부의 금강저문양과 도트에서
노폐물,독소,나쁜기운 빼는 특급비밀!
◉신는 순간 발이 따뜻해지며
매끈매끈,보들보들,보송보송 100%보장!

한국인의 희망 KBS(생로병사의비밀, VJ특공대, 감성매거진 행복한오후)출연
SBS스페셜(0.2평의 기적)출연 BBS불교방송(무명을 밝히고)출연
동아일보 한겨레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등 기사 다수

특별판매가 : 2만원 (배송은착불)

주문처 : 서울법당 (02)-456-0035
부산법당 (051)-583-7886
대구법당 (053)-743-0063

인터넷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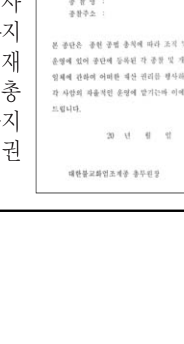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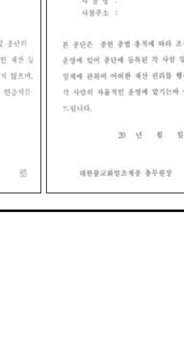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입 종 안 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십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碍)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문 의 : 총무원 054)632-2799
창종주 011-228-7813

※종단입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종주 혜상스님께 문의 바랍니다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1조.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